

## 제4차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의 결과

제4차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가 7월 18일~19일까지 요르단 사해 King's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되어 6월 브뤼셀 회의에 이어 공여국들의 對이라크 재건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라크 정부의 새로운 국가개발전략 및 원조조정 메커니즘을 승인하였음.

### I. 핵심내용

- 이라크 정부는 Barham Salih 기획개발협력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2005~2007년간 이라크 재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과 단기 재건사업 우선분야를 발표하고 참가국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 이라크 정부는 기존 재건사업의 조정 메커니즘을 이라크의 Ownership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새로운 원조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을 하였

으며 참가국들은 이를 환영함.

- 지난 1년간의 이라크 재건신탁기금(IRFFI)를 통한 다자원조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교훈에 대해 논의, IRFFI가 대이라크 지원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향후 지원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키로 함.

###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6월 브뤼셀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표명한 이라크 신정부에 대한 지지 및 재건지원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의미를 갖는 회의로서 중요성이 회의 개최 전부터 강조되어 온 바, 동경 제3차 회의시 보다 많은 70여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 참가국들은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4개 분야 재건 목표표를 포함한 3개년 국가개발전략과 전력분야 등 단기 중점추진분야를 적극 지지하고 재건지원 조정 메카니즘 개선안을 승인한 바, 치안불안 등으로 이행실적이 높지 않은 재건지원사업들이 다자원 조의 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회의에서는 이라크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전력공급 확충, 식수문제 해결, 주택공급 확대 등을 단기 중점추진분야로 설정하였는 바,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양자 및 다자지원도 이러한 이라크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라크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재건과정에서의 이라크의 Ownership과 이라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여국과 UN 및 WB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향후 재건 지원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측이 제시한 새로운 원조조정 메카니즘에서 이라크 현지에서의 공여기관과 이라크 정부간 협의 채널 강화와 분야별 실무그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원조조정 그룹 참여 강화가 필요하며, 중점지원분야 선정 및 동 분야 실무그룹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봄.

### Ⅲ. 상세 논의 내용

#### 1. 확대회의(7. 18)

※ 주요 참가국 : 이라크 및 70여 이라크 재건 지원국, World Bank, IMF, UNDG 등

#### 1) 이라크 국가개발전략(NDS) 및 단기 중점추진 분야 발표

- Barham Salih 기획개발협력부장관은 금번 회의가 이라크 재건 및 정치일정상 중요한 시기에 개최됨을 지적하면서 재건과정에서의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 등 노력을 통해 재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Salih 장관은 이라크 재건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단기 중점분야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분야인 전력 및 식수공급 확대, 주택공급, 소액용자, 교육지원 등을 제시함.
  - 특히 전력공급이 9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0억불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
- 이어 향후 3년간 이라크 재건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개발전략의 기본틀로서 경제성장의 기반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정 및 치안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건과정에서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와 민의의 반영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것임을 설명함.
  - 지역차원의 재건노력이 일부 국가들의 적극적 관심으로 바스라, 사마와 등 지역에서는 이미 상

당한 성과가 있음을 소개

□ 한국, 미국, EU, 호주, 이태리 등 다수 국가가 이라크 정부의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책기조도 적절함을 평가하고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은 NDS가 경제성장의 토대구축에 중점을 둔 것은 적절한 접근이며, 농업 등 여타분야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노력은 장기적인 이라크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임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출 중에서 정부 보조금의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축소와 동 보조금이 전체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일부 국가들은 2005년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에의 추가지원 공약을 발표함.

- EU : 기존 2005년 지원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약(총 145백만 유로 규모로서 105백만유로는 UNDG를 통해 40백만유로는 World Bank를 통해 지원)

- 호주 : 향후 2년간 45백만불 추가지원(그중 20백만불을 IRFFI에 기여:UNDG 12백만불, World Bank 8백만불)

- 이태리 : 10백만불 IRFFI(UNDG)를 통해 농업 관개분야 등에 추가지원

- 덴마크 : 5.5백만불 IRFFI에 추가지원

- 스페인 : 20백만불 IRFFI(UNDG)에 추가지원

- 그리스 : 1.9백만불 IRFFI(UNDG)에 추가지원

※ 미국은 양자지원 형태로 지방 긴급구제 프로그램

지원(Quick local emergency relief programme)에 3.2억불 및 지방개발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26백만불을 추가지원 예정임을 언급

## 2) 원조 조정 메카니즘 개선

□ Salih 장관은 국제사회와 공동노력을 통한 이라크 재건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메카니즘을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있고 조화된 방식으로 재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의 새로운 원조 조정 메카니즘을 제시함.

- 이라크 재건 포럼(IRFO:Iraq Reconstruction Forum) : 현재의 공여국위원회를 확대하여 포럼형태의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기획부장관과 World Bank 및 UN이 공동의장 수임. 연 2회 개최하여 재건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함.

- 바그다드 조정그룹(Baghdad Coordination Group) : 이라크 기획부와 바그다드 소재 원조 기관간 회합을 정례화(매월)함으로써 전략을 구체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일관성, 지연문제를 해결

- 분야별 실무그룹(Sectoral Working Group) : 해당 이라크 정부부처(Line ministry)와 주요 공여국들이 참여하며, 이라크정부와 공여국간 분야별 지원사항을 논의하며 매주 바그다드에서 개최. 석유, 교통, 보건, 수자원, Municipality and public works, 전력, 주택, 법치, 민간분야

개발 등 9개 분야를 실무그룹 설치 대상분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은 전력, 보건 및 법치 등 3개 분야로 시작 예정

- 상기와 병행하여 이라크전략검토위원회(ISRB)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조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Core of coordination)을 수행토록 함.
  - 다자지원뿐 아니라 양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ISRB의 승인을 거쳐 시행토록 함.
  - 구성위원을 확대(재무장관, 기획장관, 중앙은행 총재, 감사원장, 해당 지방정부 의장 등)하여 사업의 일관성 제고
- 미국, 일본, 한국 등 참가국들은 이라크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ISRB가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에 대해 환영하고 이를 통해 對이라크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3) 재건지원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

- World Bank 대표는 World Bank 이라크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9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완료되고 8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지원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을 소개
  - 지원사업의 성공에는 사업시행상 지역적, 분야별 유연성 유지가 중요
  - 이라크 국내 노동력과 서비스를 활용(진행중인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이라크 정부의 Line ministry가 직접 수행)
  - 사업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제도가 긴급요

- UNDG 대표는 이라크 재건지원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장애요소로서 치안불안, 이라크측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과정과 잦은 담당직원 교체 등에서 초래되는 정책결정 지연, 신뢰할만한 정보의 부족, 현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을 지적하고 지원사업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다음을 소개
  - 다자지원은 지원창구 단일화를 통해 중복지원 회피 및 거래비용 절감 가능
  - 이라크측의 명확한 방향제시 여부가 지원사업 성공의 관건인 바,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가 중요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중요
  - 치안불안 상황 하에서 현지 전문인력 활용이 유용
  - 공여국의 지원대상분야 지정(Earmarking)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하고 이라크측이 제시하는 우선분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EU 대표는 World Bank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라크 내부의 제도적 역량형성을 통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World Bank가 사업이행 속도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일본 대표는 사업추진 이전에 예산과 시행기관의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함을 지적함.

- 미국은 사업의 성공적 이행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
  - 모든 과정에서 이라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지원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라크측에 상세 설명
  - 인적자원 개발은 속도가 느리나 재건성공의 관건임.
  - 지방재건개발위원(Provincial reconstruction development councils)는 지방에서의 사업추진에 중요
  - 책임 확보(이라크측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동노력) 필요

#### 4) 제헌 및 선거절차 관련 진행현황 브리핑 청취

- 이라크 의회 제헌기초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라크 의회에서의 헌법초안 작성작업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소개함.
  - 8월 15일까지 초안 완성을 목표로 6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중이며(8. 1) 일차적으로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 예정
- 의장은 헌법 제정과 국민투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8. 15) 헌법초안 채택 이후 포스터 제작, 지방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함.

## 2. 공여국 회의(7. 19)

※ 참가국 : IRFFI 회원국(23개국), 이라크, UNDG, WB, IMF

### 1) 신규 회원국 확정

- 덴마크가 1천만불 이상 지원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금번 회의부터 정규 회원국으로 참여함.

## 2) IRFFI 운용 현황 청취 및 승인

### 가. World Bank 보고

- WB 신탁기금이 2004년 3월, 운용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총 366백만불 기여금 확보 및 9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7개 사업을 이라크 관계부처가 직접 시행함.
- WB는 시행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의 Ownership을 강조하고 제도적 능력형성을 통한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성과 제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조달 과정을 선명하게 시행하고 사업 시행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예산을 집행 및 치안여건을 감안, 현지 이라크 전문 감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
- 사업 시행을 전국에 걸쳐 분산 시행하고 지방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조장, 효율성을 제고함.

### 나. UNDG 보고

- 지난 6개월간 6.7억불 기여금을 확보, 3.9억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2.9억불을 집행하여 37%의 집행실적(Disbursement rate)을 기록함.
  - 그중 공여국들은 총 기여금의 49%를 전력, 교육, 위생, 식수 등 기초 서비스 제공에 할당(20%가 전력분야)
- 매 사업마다 추진과정에서 분명한 계약기준에 따르고 웹사이트를 통해 조달정보 및 입찰결과 공개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분야별 지원대상범주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Cluster 방식을 통해 중복지원 회피 및 사업 시행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다. 공여국들의 반응

- 회원국들은 WB 지원사업의 추진속도가 느림을 지적하고 보다 사업의 진척을 가속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WB 및 UNDG측에 요청함.
- 이라크측은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여액을 단기 우선분야 사업추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치안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한 점을 평가하면서 치안 상황을 감안, 당분간 현장사업 추진보다는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함.
- UNDG측은 IRFFI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위원회가 지침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위원회가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한 신탁기금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에 귀속시켜 활용하기로 함.

#### 3) 공여국지원데이터베이스(DAD) 추진현황 설명 청취

- 이라크 기획부가 UNDP와 협조 하에 추진중인 공여국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청함.

- 참가국들은 각 공여국들이 제공할 데이터 양식, 제출시기, 제출처 등을 문의한 바, 이라크측은 데이터 제출양식 등 관련정보를 각국에 제공하기로 함.

#### 4) 이라크 재건신탁기금이 나갈 방향

##### 가. 다자지원 stock-taking exercise

- 캐나다의 제안으로 다자지원 메카니즘의 Multi-donor stock-taking exercise를 추진기로 하고 구체 기금조성,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추진시기 등은 추가 협의하기로 함.

##### 나. 이라크 주도의 원조 조정 메카니즘 형성

- 이라크가 제안한 이라크 정부 주도의 새로운 원조 조정 메카니즘 시행을 위해 IRFFI 위임사항을 별첨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 위임사항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국은 2주 내에 캐나다 대표단에 제출하기로 함.

##### 다. 외부 지원 제고 방안

- 의장은 IRFFI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에 잠재적인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및 지원확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언급함.
  - 의장은 IRFFI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해 달라고 요청

#### 5) 차기 공여국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및 시기

- 06년 2월 터키에서 개최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는 UN과 의장단 및 터키 정부간 협의를 통

해 확정되는 대로 회원국들에게 통지기로 함.

#### IV. 기타사항

- 금번 회의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이라크 재무장관 및 기획부장관을 접촉,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민간 채권문제 및 對이라크 재건사업 추진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음.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재건지원 현황을 소개하는 자료(Koreas Assista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Iraq)를 회의장에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음.

[자료:주요르단 대사관]